

공공근로 급여 일부 봉사기금 조성 '시끌'

제주시 모 지역 봉사단체 마을회의 거쳐 기금 조성 일부 주민 "이해 안돼"... 단체 "강제성 없어" 해명

제주지역 한 봉사단체가 단기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급여 일부를 떼내 봉사활동 기금으로 조성해달라고 독려한 것을 두고 일부 주민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7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두달간 제주시 한 지역 내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할 단기 공공근로자 모집을 해

당 지역의 A봉사단체에 위탁했다. 이에 A단체는 지역 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자 100여명을 모집한 후 두달간 공공근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단체에서 공공근로 급여의 일정액을 봉사활동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주민이 반발하며 문제가 됐다. 봉사활동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600여만원에

이른다. 주민 B씨는 "힘들게 번 돈을 봉사활동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봉사활동을 할거면 자기 돈으로 하지 왜 다른 사람이 힘들게 번 돈으로 모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단체 회장 C씨는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해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C씨는 "지난 8월부터 지역내 모든 마을이장들과 함께 두번의 회의를 거쳐 승인을 얻고 결정된 사항"이라며 "강제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으며

대부분의 마을에서 좋은 취지로 모금하는 것을 알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반발해 해당 마을은 기부금 자체를 받지 않았으며 일부 동참하고자 했던 회원들의 기부금도 다 돌려줬다"며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도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강제성이 없는 모금 활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 구속 기로

세월호 당시 해경 경비과장 검찰 "구조 조치 미흡 책임" 오늘 영장실질심사 예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 여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대상자는 여 청장을 비롯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에 관

여한 해경 지휘부가 포함됐다. 여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해양경비과장이었다.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여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민기자

제주출신 권용석 계장 경찰의 꽃 '총경' 승진



제주출신 권용석 (51·사진) 인천지방법경찰청 강력계장이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으로 승진했다.

권용석 계장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1회)와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하고 1991년 경위로 임용됐다. 이후 2010년 경정으로 승진해 인천서부서 형사과장, 인천남동서 형사과장, 인천청 강력계장, 인천청 제2부 형사과장수대장 등을 역임했다. 김현석기자



관광객 사로잡는 제주도 도두동 해안도로. 낮 최고기온이 23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인 7일 제주도 도두동 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겨울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 축협 관계자들 약식기소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 사건에 연루된 제주축협 관계자들이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2명을 벌금 5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의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은퇴 경주마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스통 취급 대충대충... 안전불감증 여전

서귀포시 관내 최근 4년간 음식점 등 417곳 적발

서귀포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취급 업소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역 내 LPG 가스 취급 음식점, 숙박시설 등 8400여 곳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17건의 개선사항을 적발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개선명령 조치 등이 이뤄졌다.

LPG 가스 안전시설 미흡에 따른 개선사항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1건, 2017년 23건,

2018년 220건, 지난해 73건 등으로 LPG 가스 취급 업소에서 매년 수십여건에서 많게는 수백여건에 달하는 가스 안전시설 미흡에 따른 개선사항이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제주지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LPG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한번의 가스폭발 사고는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매년 LPG 가스 사용 음식점, 숙박시설 등 LPG 가스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안전시설 부적합판정이 내려진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LPG 가스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점검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생활안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차귀도 해상서 어선 전복... 60대 선장 숨져

선원 13명은 무사히 구조돼

차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8분쯤 차귀도 서쪽 37km 해상에서 목포선적 M호(35t·승선원 14명)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인

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2척에 의해 구조됐지만 선체에 갇혀 있던 선장 A(61)씨는 출몰한 해경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M호 선원들은 사고와 관련해 해경측에 "높은 파도를 맞아 어선이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제주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가 선체를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가거도에서 남서쪽 약 50km 떨어진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181t, 승선원 15명)와 B호(190t, 승선원 14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세부 조사를 실시하고 총 8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김현석기자

제자 강제추행 교수 송치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도내 모 대학 A(60)교수를 검찰에 기

소건의료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여제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측은 A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다. 김현석기자

토종축염소목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축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제주최대

축염소 체험농장 · 편백숲

12월행사 제주도민 무료입장

2020년 해돋이는 고이오름에서

SNS 태그 매월 추천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축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T. 064.805.5099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토종 축염소 요리 전문점

축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축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편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축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술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 고기 식당 납품 가능

축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764.6678